백두산

13호 - 주체91(2002)년 4월 27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로농적위대열병식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로농적위대열병식이 25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통로들에는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혁명학원, 조선인민군 군사학교 종대들이 정렬해 있었다.

광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광장상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등의 구호를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 있었다. 또한 광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등의 구호들과 ≪경축 4.25≫라는 글발이 나붙어 있었으며 대형의 당기, 공화국기들이 드리워 져 있었다.

애국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가 게양되였다.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수천개의 고무풍선이 날아 올라 수도의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일철차수가 연설하였다.

이어 인민무력부장과 열병총지휘관은 열병부대들을 사열하면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축하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 인민무력부장이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로농적위대열병식시작을 보고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올리고 ≪**김정일**≫, ≪결사옹위≫, ≪조국통일≫이라고 합창하였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힘차게 불렀다.

열병식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울리고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김일성**주석의 초상기가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붉은기종대와 함께 광장에 입장하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주석의 초상기를 우러러 ≪영접들어 총≫을 하며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군악이 련이어 울리는 가운데 평양시로농적위대종대를 선두로 각 도(직할시)로농적위대종대들, 붉은청년근위대종대들과 혁명학원종대들이 지축을 울리며 기운차게 행진해 나갔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열병부대들이 주석단앞을 지나갈 때마다 손을 높이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민간무력종대들에 이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군사학교종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하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주체혁명무력의 불패의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하였다.

드넓은 광장을 메운 군중은 ≪**김일성**≫, ≪**김정일**≫, ≪선군정치≫, ≪결사옹위≫, ≪전민무장화≫ 등의 대형글발들을 련이어 새기였다.

열병식이 끝나자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수천개의 고무풍선이 창공높이 날아 오르는 가운데 로대에 나오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5일

10만명출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역사적인 첫막

민족종합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아리랑≫축제가 14일 밤 10시에 막을 올렸다. 이 공연을 관람한 재미동포 현준기 선생과 김현환 박사는 공연관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입 딱 벌리고 관람하기 시작해서 입 딱 벌린채 막이 내렸다≫고 이구동성으로 응답하면서 80여분의 축제가 한순간에 지나가는 듯 놀람을 금치 못했다고 말한다.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일정은 4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두달간의 공연으로 진행되지만 이북동포들과 일부 해외동포, 4월 봄축제에 참여한 외국인 형제들 그리고 외교관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개된 4월14일의 첫 공연은 성공리에 진행됐다고 한다.

10여일 동안 이북을 방문하고 24일 로스엔젤레스에 돌아 온 김박사는 해외동포 이산가족사업 관계로 여러차례 북을 방문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보아왔지만 이번에 공연한 ≪아리랑≫ 작품처럼 감탄한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1989년 세계청년축전때 보았던 작품과 당창건 55주년 기념축제에서 관람한 대집단체조예술에서도 놀랐었지만 이번의 ≪아리랑≫공연은 관중들을 완전히 황홀경으로 매혹시킨 경이스러울 정도의 최우수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이 작품을 보면 그 어떤 외국인들도 우리 민족이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이해하게 되는 작품이라고 김박사는 지적한다. 다른지역에서 온 해외동포들의 반응들은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놀랐다≫, ≪대단했다≫는 등 그저 감탄사들로 넘쳐흘렀다고 말한다.

민족통신 2002/04/24

2 조선인미군창군 70돌
- 선군영도와 그 활력
- **김정일**장군 영군철학은 백전백승의 무기
- 혁명적무장력 – 조선인민군
-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행사

5 노작
-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8)

7 세기와 더불어
- 7장 2절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2)

9 노동신문 사설
- 선군의 기치밑에 백승의 력사를 창조한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영광이 있으라

11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를 지니신 자애로운 어버이

12 한국민족민주전선
- 제6차 부평미군기지반미연대집회
- 1300만이 하나가 되자

13 투쟁보도
- 부산시민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
- 우리식사회주의와 선군정치
- 울산, 민주노총 · 민주노동당 예비경선
- 이문옥씨 진보계 서울시장 출마
-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 통일연대 한총련 합법화 바라는 이유
- 전농 창립 12주년 기념식 열려
- 민주노총 제25차 대의원대회 ≪유회≫

15 운동강좌
-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3)

선군영도와 그 활력

지금 우리 이남 민중들은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덕분으로 전쟁이 없는 땅에서 발펴고 잠을 잘 수 있다며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민중시인 오철승씨는 장시 ≪겨레사랑 선군정치≫에서 이렇게 격조높이 읊었습니다.

…
선군정치여
너는 이북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남의 우리도 함께
동족으로 지켜주었다
선군정치가 아니었다면
핵병기가 광란하는 이 땅에
미국이 살판치는 이남땅에
공장은 돌아가고 학교는
문을 열 수 있으랴
…

그럼 이번엔 ≪선군영도와 그 활력≫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북 민중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영도를 높이 받들고 미국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짓부수면서 조국번영의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온갖 열의를 다바쳐가고 있는데요. 제70회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맞으면서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영도, 그리고 그 활력을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군영도에 관해 말하기에 앞서서 우선 선군정치문제부터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선군정치란 무엇이고 그것이 출현하게 된 경위랄까, 그에 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현규 :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선행한 이론에는 선군이라는 말자체가 없죠. 선군정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처음 내놓으신 겁니다. 선군정치를 풀이하면 그건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변혁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인민군대를 변혁투쟁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해서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입니다. 그리고 선군정치의 출현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의 심화발전에서 이루어진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석님께서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자체의 강력한 군력으로 무장한 적을 무찌르고 조국을 광복하실 독창적인 선군사상을 제시하시고 그에 기초해서 광복을 이룩하셨습니다. 그후에 변혁투쟁의 전행정에서도 선군의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해오신 주석님께서는 선군사상에 기초하시어 군대를 먼저 창건하시고 당과 국가를 건설하셨습니다. 그후 국방력강화에 진력해 오셨고 사회주의위업을 현명하게 영도해 오셨습니다. 주석님의 이런 선군영도가 있어서 이북에서는 광복후 새 나라를 건설할 때나 6.25전쟁시기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시기를 비롯한 모든 투쟁의 나날들이 걸음걸음 성공에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회자 : 그리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근 수년간 이북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시어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민중이라는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을 내놓으셨는데요. 이건 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나날이 심각화되는 상황에서 현실적 요구에 부합되게 더욱 심화발전시킨 것 아닙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정말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을 제시하셨는데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그 침략책동이 지속되는 한 총대를 튼튼히 거머쥐어야 주체위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민족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선군사상에 맥박치는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군님의 선군사상의 심화발전은 바로 인민군대를 변혁투쟁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변혁투쟁을 밀고나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의 얘기를 통해서 선군정치는 총대철학, 그러니까 노동자계급의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그 총대철학에 기초하셔 **김정일**장군님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는 점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화제를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선군영도로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장군님께서는 이북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우는 그 엄혹한 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선군의 기치를 높이 치켜드시고 인민군대와 이북 민중을 현명하게 영도해오셨죠. 정말 그 나날에는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절세위인의 영웅서사시로 빛나게 새겨진 그런 연대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현규 : 정말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시작하신 시기 이북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북책동으로 매우 준엄한 정세가 조성됐었습니다. 이북은 그야말로 총포성없는 전장이었는데요. 그 엄혹한 시기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독창적인 선군영도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북관련 자료를 보니까 1995년 1월부터 2001년말까지에 7년간 그분께서는 577일에 걸쳐 11만6694킬로미터, 그러니까 29만1730여리나 되는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역사의 시련을 앞장에서 헤쳐나가신 거죠. 그중에서 무력부문만도 814개 단위나 된다고 하더군요.
사회자 : 이 땅의 보도단체들을 통해서 간간히 새어나오는 소식만 가지고도 장군님께서 얼마나 정력적으로 선군영도를 이어가시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규 : 최전방 판문점초소며, 험하기 이를데 없는 영들을 수없이 넘나드시며 찾으신 대덕산 초소며 오송산 고지구역 그리고 거센 파도 무섭게 밀려나도는 섬초소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이어가시는 그분의 선군영도의 고비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주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계속 성공에로 이끄시는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력과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사회자 : 정말 **김정일**장군님의 7년간의 혁명실록은 탁월하고 비범한 선군영도, 총대중시사상으로 내 나라, 내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온갖 어려움을 짓누르고 이북을 성공에로 치솟게 하신 정말 자랑찬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선군영도의 활력에 관해서 몇가지로 나눠서 얘기가 됐으면 합니다.
김현규 : 선군영도의 활력은 우선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나 무비의 위훈을 떨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군님의 선군영도아래서 인민군대가 강화되어 그들은 일당백의 무적용사로, 만능의 싸움꾼으로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민군은 세계를 전쟁에로 몰아가는 미군의 억제력으로, 세계평화의 수호군으로 높이 자리매김되고 있는 겁니다.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들이 이 세상 어느 군대도 따를 수 없는 사상의 강군, 수령옹위군으로 이름 떨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회자 : 그런 얘기가 나오면 먼저 떠오르는 게 몇년전 뜻밖의 일로 이남 땅에 체류되어 억류됐다가 끝내 북송된 인민군 군인들의 모습인데요.
김현규 : 정말 그때 그들은 온갖 위협도, 유혹도 다 물리치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김정일**장군님 칭송노래를 부르면서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있어도 **김정일**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얼마나 당당히 외쳤습니까.
사회자 : 그때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탄복했었죠.
김현규 : 그런 사상의 강군앞에서는 그 어떤 적도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승리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구요.
사회자 :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써의 갖춤새를 다 지니고 있으니까 그를 당할 자가 세상에 없는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군님의 선군영도의 활력으로 꼽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의 하나가 이북이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민족의 존엄을 고수한거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먼 얘기는 그만 두고라도 오늘 조성되고 있는 정세만 봐도 어떻습니까. 전쟁광신자 부시는 이북에 대고 ≪악의 축≫이라는 호전적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당장 없앨 것처럼 으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민중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행각하고 전쟁준비태세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북을 핵타격의 주되는 대상으로 정한 ≪핵태세 검토보고서≫의 공개나 그에 뒤따른 최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은 이북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부시호전집단의 광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죠.
사회자 : 정말 도수를 넘어 극한점에 이르고 있죠. 이렇게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이 지난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끊임없이 이북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북은 끄떡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고 있죠. 이건 바로 장군님의 현명한 선군영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선군영도의 활력은 또 이북에서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북은 1994년이후 몇년간 건국이래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거친후 98년 ≪광명성 1호≫ 인공위성발사로 강성대국건설의 첫포성을 울렸는데요. 이 시기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펴시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양시켜주셨죠. 그래서 우리 겨레는 오늘 눈에 크게 띄는 거대한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북은 막강한 군력의 과시로 되는 인공위성을 발사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세년년 내려오던 올망졸망한 토지를 대규모 포전으로 정리하는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북 곳곳에서 중형, 대형발전소들을 건설하고 또 민중생활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대규모 공장들을 건설했습니다. 그토록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당당히 앞으로만 나아가는 이북을 보면서 세상사람들은 이북에서 머지않아 강성대국승리의 깃발이 세차게 휘날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 이북에서의 강성대국건설성과뿐아니라 우리 민족사에 기리 전해질 뜻깊은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이 마련된 데에서도 우리는 장군님의 선군영도의 활력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선군영도에 의해 이북에서는 나라의 위력과 민족의 존엄이 남김없이 떨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어느 한 당의 당수도 존경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선군영도로 승리만을 기록하는 이북이 지니고 있는 국제적 지위와 존엄으로 해서 세계 진보적 인류의 이목은 조선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규 : 정말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미국을 마음대로 다루는 선군영도의 위력에 세계는 완전히 매혹됐죠. 그건 곧 위대한 선군정치의 영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매혹이 아니겠습니까. 선군정치의 활력에서 세상사람들은 희세의 대정치가의 위인상을 보았고 21세기를 주도해 갈 그분의 탁월한 정치지도력을 다시금 깊이 느꼈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사회자 : 오늘 얘기를 마치면서 저도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북에 높이 세워진 성공탑은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영도가 낳은 결실이라는 것, 그분께서 계셔 민족의 존엄은 확고히 고수되고 또 번영하는 통일조국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중 모두는 절세의 위인 **김정일**장군님만을 언제나 높이 우러르면서 조국통일성업에 매진할 걸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5일

김정일장군의 영군철학은 백전백승의 무기

이북 주재 페루대사관 무관 에르나르드 크리스티안 라운누이가 1995년에 쓴 글 ≪**김정일**장군의 영군철학은 백전백승의 무기≫를 간추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인민군이 강력한 군대라는 것은 세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의 현대전쟁사와 기적같은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누구나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페루의 첫 무관으로 조선에 주재하면서 군사전문가로서는 발견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오늘의 이 나라 무장력에 대한 목격자의 시점에서 건군이래 조선인민군이 치른 전쟁들을 다시 고찰하는 과정에 보고 느낀 내용들을 이 글에 담으려고 한다.

* * *

조선에서의 첫 전쟁은 1930년대초부터 진행된 대일유격전쟁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대하여 말할 때 교전쌍방의 병력수와 무장장비, 경제력을 위주로 전쟁의 규모와 전쟁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규정하며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다. 지난 기간 군사전문가들 속에서 조선의 대일유격전쟁이 온당한 높이에서 중시되지 못한 중요한 원인도 이런 기존 관념의 작용일 것이다.

당시 이 전쟁의 교전일방이였던 일본은 아시아제패를 국가정략으로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하였다. 수백만의 정규군과 막대한 무장장비들에 의거하여 일본은 유럽에서의 독일과 함께 아시아에서 위험한 군국주의세력으로 대두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나라를 광복할 사명감과 그 해결방도를 새롭게 찾고 인식한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일본 제국과의 대전을 단호히 선포하였다. 그들에게는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 후방도 무기도 없었다. 당시 일본인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교전쌍방의 무력은 그야말로 창해와 일속이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15년간 자기의 존재를 지탱하면서 승리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였다.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사이에 벌어졌던 미국 주도하의 다국적 무장력과의 전쟁에서 조선인민군의 승리 역시 기적이였다.

전쟁발발 당시 미국은 이상적인 지위에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교전쌍방대국들이 극도로 약화된 것을 기화로 단연 세계 최대의 경제군사대국으로 된 미국은 유사이래 볼 수 없었던 번영의 길을 걷고 있었다.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대국적 지위는 수많은 미국의 추종국가들을 산생시켰다.

그 연쇄반응으로 유엔도 미국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었다. 반면에 조선은 정규군이 창건된지 얼마 안되였고 경제는 아직도 광복후의 복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은 원자탄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은 수류탄공장도 변변한 것이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페루 민중을 비롯하여 세계는 연민과 동정의 눈으로 조선을 지켜보면서 신진 조선의 운명을 두고 한결같이 심심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조선인민군은 세계의 예측과 우려를 뒤집어엎고 기적같은 현실을 창조하였다.

다국적 무력은 수많은 전투들에서 연이어 패배의 쓴맛을 보다가 3년만에 드디어 조선측의 요구가 반영된 휴전협정문에 조인하였다.

조선전쟁은 세계 전쟁사의 많은 면에서 기록을 남긴 주목할만한 전쟁이였다.

우선 근대 세계역사에서 초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오던 미국이 패전한 첫 전쟁이였다. 이 전쟁에서 미국은 40만5000여명의 자기 군대를 잃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한 110여차의 전쟁에서 있어본 적이 없는 기록이였다.

조선전쟁은 또한 면적개념으로 보나 시간적 면에서 볼 때 전투밀도와 강도가 가장 높은 전쟁이였다. 22만여평방킬로미터의 조선반도 그 어느 지역도 전쟁의 불길이 미치지 않은데가 없었으며 1120여일의 전쟁기간 어느 하루도 총포소리가 멎은 적이 없었다. 면적당 사상자수와 파괴의 규모에서도 세계적 기록을 낸 전쟁이였다. 공화국 북반부의 매 1평방킬로미터당 평균 18개, 평양시에만도 인구 1사람당 1개에 해당하는 40여만개의 폭탄이 투하되였다. 북반부전역이 말그대로 잿더미로 되였다. 바로 이런 전쟁에서 조선인민군은 승리했으며 미국 장군들은 자기들의 고백으로써 패배를 인정하였다.

조선의 무장력은 세계 앞에 참으로 놀라운 현실을 펼쳐놓았다. 전쟁에 대한 기존 관념과 기준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닐까할 정도로 놀라운 결과였다. 그러나 군사전문가인 나는 그 어떤 경우에나 전쟁에서 우연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물현상에는 우연이 있을 수 있어도 힘과 정신력의 대결인 전쟁에서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필연만이 있을 뿐이다.

조선의 현대전쟁사와 무장력에 대하여 고찰할 때 휴전후 40여년간을 옳게 보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953년 7월 27일에 전쟁 쌍방은 휴전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휴전당시 기구들이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휴전은 말그대로 전쟁의 종결이 아니며 전쟁의 일시적인 중지일 뿐이다. 이러한 상태가 조선에서는 40여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다.

휴전의 너울속에서 진행된 이 반세기에 가까운 장기전에서 미국측은 언제나 공격자였으며 조선인민군측은 방어자였다. 미국과 ≪한국≫ 군부에서 비밀리에 작성된 많은 전쟁계획들이 공격작전도였고 한반도의 남쪽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군사훈련들이 공화국의 해당지역을 가상하여 진행되였다는 널리 공개된 사실들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40여년간의 방어전에서 자기 진지를 튼튼히 지켜냈다. 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가. 하나의 작은 전투에서도 차지한 계선을 견지하기 위해 점호를 파고 전호를 **하는데 하물며 40여년간 자기의 진지를 지키는 과정에 조선인민군의 방어력이 어떻게 꾸려졌겠는가 하는 것을 군사전문가들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조선인민군은 20세기의 95년중 60여년간 유격전, 정규전, 지구적인 방어전을 치루어온 세계 유일무이한 군대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전쟁사에 대한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조선의 무장력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것으로 공인된 적수들을 상대하여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다양한 형태의 전쟁을 하였고 그 모든 전쟁들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한 무적의 강군이다.

그렇다면 조선인민군의 백전백승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조선의 전쟁사를 분석해보면 조선인민군의 모든 승리에 관통되어 있는 것은 교전대방의 숫적, 기술적 우세에 비한 사상도덕적 우세, 전략전술적 우세라는 것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을 지배하는 사상과 도덕은 **김일성**대원수와 **김정일**장군에 의해 제시되였고 전략과 전술 역시 그분들에 의해 작성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의 승리와 무적의 결정적 요인이 바로 이 희세의 영장들의 특출한 실력과 풍모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이 크지 않은 나라의 현대전쟁역사와 오늘의 군사정치를 연구하면서 조선의 무장력이 이룩한 승리를 군인중심의 주체적인 건군사상에서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고찰로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사람중심, 사상위주의 주체철학에 기초하시어 무장력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군인이며 군인들의 사상과 도덕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이것이 그분의 영군철학이다. 이 위대한 영군철학이 군사건설위업에 구현되어 오늘 조선인민군에는 최고사령관과 장병들간의 혼연일체, 군대와 민중간의 군민일치, 지휘관과 병사들간의 관병일치가 이루어져 있다.

조선의 무장력에만 고유한 이 특수한 면모를 나는 내 나름대로 4대일체라고 부르고 싶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5일

혁명적무장력 – 조선인민군

4월 25일은 조선인민군이 창건된지 70돐이 되는 날이다.

이 날에 즈음하여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승리와 영광으로 수 놓아 온 혁명무력의 자랑찬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 보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0년전에 조선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그리고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벌려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광복(1945.8)후 조선인민혁명군은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1950.6~1953.7)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두 제국주의강적과 싸워 이긴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슬하에서 더욱 무적강군의 대오로 자라났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키우시고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나라의 정세가 류례없이 엄혹하였던 1990년대에 인민군대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지니신 비범한 예지와 뛰여난 정치군사적 실력, 무비의 담력은 오늘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백배해 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4월 25일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행사

열병식참가자들의 례식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며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 충성을 맹세하는 로농적위대 열병식 참가자들의 례식이 25일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궁전 정면에는 **김일성**주석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다. 광장에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 져 있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례포가 발사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일성**주석을 우러러 삼가 경례를 드리였다.

례식에서는 김일철인민무력부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김일성**주석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광을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주석께서 일찌기 주체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자위의 군사로선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고 피압박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여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위대한 정치가, 혁명의 대성인이신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연설자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라고 하면서 전체 로농적위대원들은 당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 하며 그이를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로농적위대원들이 미제호전광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 있는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선로동당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의 구호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노래를 힘차게 합창하였다.

이어 로농적위대 열병대원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청년학생들 야회 및 홰불행진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홰불행진이 25일 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광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다. 축포가 터져 오르는 가운데 청춘남녀들이 신심과 랑만에 넘쳐 흥겨운 춤률동을 펼쳐 놓았다.

광장에 ≪조선인민군가≫의 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일성**주석의 영상을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선두로 장엄한 홰불행진이 시작되였다.

항일혁명투사들, 조국해방전쟁로병들, 청년동맹일군 및 청년영웅들의 홰불대오에 이어 혁명학원학생들, 청년대학생들, 근로청년들의 홰불대오들이 광장을 누벼 나갔다. 홰불로 새겨 지는 조선인민군 모표와 ≪경축≫, ≪일심단결≫ 등의 글발들이 련이어 펼쳐 지는 광장을 ≪**김일성**≫, ≪**김정일**≫, ≪동지애≫, ≪선군정치≫라는 글발들을 홰불로 새긴 대오들이 지나갔다. 수천수만의 홰불들로 광장에 ≪육탄≫, ≪청년전위≫ 등의 글발들과 공화국영웅메달, 조선지도모형이 그려 져 불야성을 이루고 축포가 또다시 터져 오르는 가운데 조선로동당기, 붉은기, 청년동맹기들을 휘날리며 전진하는 대오들에서 청년전위들의 신념의 맹세가 담긴 구호들이 연방 울려 퍼졌다.

인민무력부야회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인민무력부야회가 24일 전승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과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인민무력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사령관들,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 군인들이 야회에 참가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륙해공군 장병들은 광장에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 놓았다.

야회참가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3대자랑가≫, ≪축원의 노래≫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다채로운 춤률동으로 경축의 광장을 수 놓았다. 야회는 건군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조선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고야 말 인민군군인들의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를 보여 주었다.

평양시내에서 경축공연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 경축공연이 24일 평양시내 여러 극장, 회관들에서 진행되였다.

4.25문화회관에서는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백두산혁명강군의 노래≫가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선군령도의 새 력사를 개척하시여 두차례의 반제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고 자주시대 혁명무력건설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신 건군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는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들이, 중앙로동자회관에서는 평양시 전쟁로병 및 영예군인예술공연이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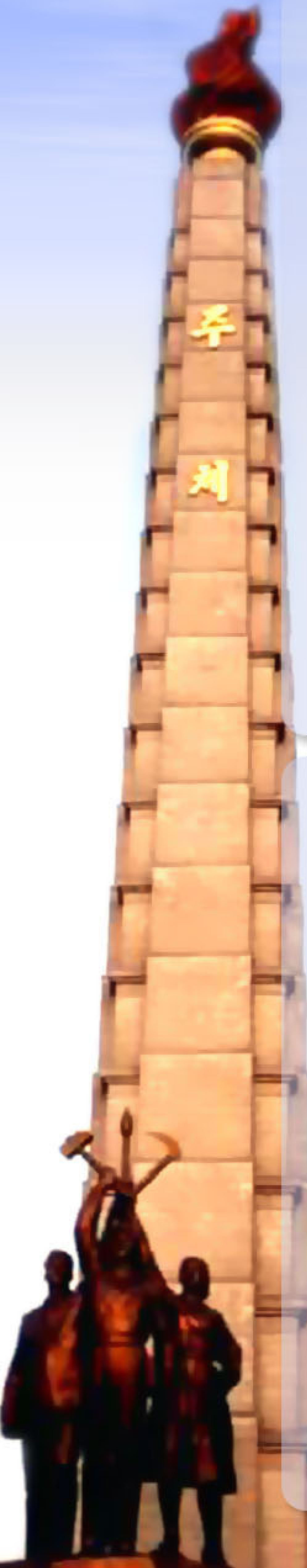
공연들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외국손님들이 공연관람에 초대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25일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8)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노작 - 주체75(1986)년



5.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 (2)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한 다음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노동계급의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게 경제관리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적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질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함으로써 경제관리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계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은 경제관리에서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한데 있습니다. 경제관리에서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하고 있는 여기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공업관리체계와 함께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와 과학적인 계획화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모든 경제지도기관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며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들을 옳게 이용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따라 각급 당위원회들이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한다는 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토의에 기초하여 당정책의 집행방향과 방도를 규정하고 옳은 결정을 채택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정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하여 당위원회가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한다는 것은 당정책에 근거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방향적 지도와 방법적 지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위원회들의 키잡이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그에 대한 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혁명은 반혁명과의 힘의 대결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들을 비롯한 계급적 원쑤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혁명이 반혁명을 타승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반동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려면 반드시 혁명무력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중요문제는 무장력이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당의 무장력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무력의 생명입니다. 혁명 무력의 기본사명은 혁명을 옹호하며 당의 혁명위업을 보위하는 것입니다. 혁명무력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당의 무력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당의 핵심들을 골간, 역량으로 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 딸들로 그 대오를 튼튼히 꾸려야 하며 군사부문에 대한 당의 영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혁명무력을 건설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자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보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 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하지만 특히 국방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국방사업에서도 형제나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의탁하여 자기나라를 보위할 수는 없으며 자체의 힘이 약하면 외부의 원조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국방사업에서는 철저히 자체의 힘을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자위의 혁명적 원칙을 구현하여 혁명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정규무력은 혁명무력에서 기본을 이루며 정의의 혁명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정규무력을 건설하는 것은 해방 후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였을 뿐아니라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나서는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해방 직후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는 사업과 함께 정규무력을 건설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정규무력을 건설하는데서 우리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유능한 군사정치간부를 준비하는 것이였습니다. 유능한 군사정치간부가 없으면 정규무력을 건설할 수도 없고 그 위력을 강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정치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을 정규무력건설의 모든 사업에서 앞세우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간부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기 위하여 해방 직후 만난을 무릅쓰고 평양학원과 중앙 보안 간부학교를 내왔으며 여기에서 노동자, 농민 출신의 군사정치간부를 많이 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전준비와,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얻은 혁명무력건설 경험에 토대하여 당과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인 인민군대를 조직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무력으로 강화, 발전시켰습니다.

나라들 보위하는 사업도 역시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 자신의 사업입니다. 전체 인민이 철통같이 뭉쳐 조국보위에 떨쳐나선다면 그 어떤 침략자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농적위대를 비롯한 민간 무력을 조직하고 그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군사노선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하여 우리 인민 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강화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습니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려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배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새사회건설의 중요한 임무는 경제건설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경제건설에만 치중하고 국방건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자주독립국가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틀어쥐고 나가야 하며 정세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적절히 배합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적들의 침략책동이 노골화되어 전쟁의 위험이 닥쳐온 때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국방건설에 온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이 하여 국방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필요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자체로 생산, 보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군사정치정세는 우리의 혁명무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들의 도발책동으로 하여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대외활동을 하여야 하며 나라의 전반적인 대외사업을 통일적으로 영도하여야 합니다. 매개 나라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이며 매개나라 노동계급이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 부대입니다. 매개나라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은 국제적인 지지, 성원속에서 발전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는 세계 여러 나라 당과 인민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대외활동을 적극 벌이고 나라의 전반적인 대외사업을 통일적으로 옳게 영도하여야 자기 나라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세계혁명 앞에 나선 임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대외 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기본이념은 자주, 친선, 평화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자주, 친선, 평화의 이념을 구현하여 대외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대외활동을 벌였으며 국가기관들과 사회단체들의 대외사업을 옳게 영도하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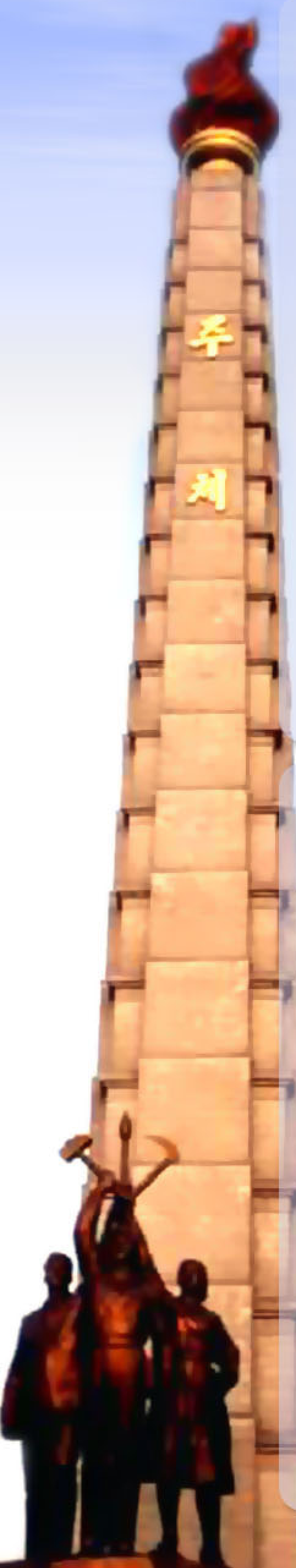
대외 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대외정책을 우리 인민이 이익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국제관계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주견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완전한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당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역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주의역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역량이며 인류역사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과 유대를 공고히 하는데 언제나 선차적인 주의를 돌렸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공동의 목적과 이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적 형제입니다.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의견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단결을 위한 부채질만 하였지 단결에 해를 주는 부채질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

당의 영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이며 영도적 수완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능란하고 세련된 영도예술을 가질 때에만 전투적인 전위조직으로 될 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각국의 노동운동을 지지하며, 세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계속나가며, 네째로 내정불간섭, 상호존중, 평등, 호혜의 원칙을 지킨다면 비록 의견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뒤로 미루고 이 네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할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좋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공산당, 노동당들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접촉과 협상을 통하여 상호이행과 동지적 협조의 정신에서 풀어나감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과 제3세계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과 반제자주의 숭고한 이념에 기초하여 블럭불가담나라들, 그리고 제3세계 나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 기술적 협조와 문화적 교류를 널리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선린관계를 맺고 경제, 문화교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입니다. 우리는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도와주고 있으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계급적 해방을 위한 자본주의나라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을 지지하며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적극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블럭 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진보적 나라들과의 단결과 친선, 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 연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6. 당의 영도예술

영도예술을 확립하는 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특히 대중영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여도 당일군들과 당조직들이 올바른 영도예술을 가지지 못하면 대중을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없으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 수 없습니다. 당의 영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이며 영도적 수완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능란하고 세련된 영도예술을 가질 때에만 전투적인 전위조직으로 될 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영도하는 과정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영도예술을 창조하고 그것을 당활동에 구현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영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한 주체의 영도예술입니다.

우리 당의 영도예술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 사업작풍입니다. 당이 영도적 기능을 옳게 수행하려면 당 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 전개하는 질서와 제도입니다. 당 안에 혁명적인 사업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세워야 당이 통일적인 규범과 규율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전투대오로 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영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의 성격과 사명에 비추어 볼 때 당사업체계는 마땅히 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사업체계로 되어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수 있는 사업체계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적 요구를 구현하여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제도와 질서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며 혁명의 최고참모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의 사상과 영도는 당중앙위원회의 영도적 기능에 의하여 실현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만 당대열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영도 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당 안에 당의 노선과 정책,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지시가 모든 당원들과 간부들과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침투하며 그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을 당중앙위원회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집행하는 중앙집권적 규율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이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당중앙위원회에 제때에 보고하지 않고 자의대로 처리하면 당활동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전당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둘째로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각급 위원회들은 당중앙위원회의 영도 밑에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활동합니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영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에서 당조직들과 대중의 창조력을 효과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집권당으로 출현한 첫날부터 당적 영도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이 심화, 발전되는데 맞게 철저히 관철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려면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국가, 경제기관과 협동단체, 교육문화기관, 사회단체 조직들을 다 장악하고 지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과 각 부문 단위들에 조직된 당위원회들은 해당 지역과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해당 단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해당 당위원회에 철저히 의지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한 데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세째로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이 아래 당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장악, 지도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도 원칙이며 사업 질서입니다. 상급 당조직들이 아래 당조직들을 장악 지도하는 사업질서를 세워야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의도에 맞게 사업해나갈 수 있으며 모든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상급 당조직들이 아래 당조직들의 사업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악과 통제가 없이는 당사업을 옳게 작전하고 전개할 수 없으며 아래 당조직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급 당조직들은 아래 당조직들의 실태와 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요해, 장악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 당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상급 당조직들의 일군들은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아래 당조직에 내려가 당정책 집행에 대하여 장악하고 지도하며 위에 올라와 총화하고 재무장, 재작전한 다음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당일군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중요한 목적은 당조직들을 도와주자는 데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상급 당조직의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당조직들의 사업을 장악, 통제하는 사업을 잘하는 것과 함께 중요하게는 아래 당조직들이 자기 단위의 사업을 잘 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래 당조직들에 대한 집중지도는 아래 당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지도방법입니다.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은 아래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정상화하면서 일정한 부문과 단위의 당조직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검열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당중앙위원회가 계획적으로 진행한 당 지방 조직들과 여러부문에 대한 집중 지도는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습니다.

(내일 계속)

3권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1)

이런 때에 항일유격대의 국내진출에 어두운 그림자를 건져주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국내와의 연계를 위하여 온성지방에 나갔던 2중대의 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자마자 김성도라는 사람에게 체포되어 동만특위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그 당시 2중대장은 안기호였고 정치지도원은 최춘국이였다. 그들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허둥지둥 마촌에 뛰어와 내 앞에서 중대지휘관들도 모르게 유격대원을 함부로 붙잡아간 김성도의 월권행위를 두고 의분을 터뜨렸다.

성미가 첫날 색시처럼 얌전하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 남의 흉이라고는 좀처럼 보지 않는 최춘국이 ≪외눈깔왕가≫라는 별명까지 입에 올리며 김성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함구무언으로 앉아서 그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였다. 김성도에 대한 파악이 별로 깊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란 그가 공청 동만특위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다가 동만당특위로 갓 소환되어 온 사람으로서 각 현으로 순시를 다니는 중이라는 것뿐이었다. 동만당 조직에는 상급조직의 간부들이 하부조직을 돌아다니며 지도사업을 하는 것을 순시라고 하였다.

나는 최춘국이 김성도를 이름 대신 상스러운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마음에 걸려 그를 엄하게 꾸짖었다.

≪춘국동무, 동무는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이름 대신 별명을 부르는 고약한 버릇을 배웠소? 김성도라는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 탈선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무한테는 그래 그의 인격을 존중해줄 만한 아량도 없단 말이요?≫

최춘국은 비판 앞에서 허심한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담고 송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언행이 조금이라도 불손했거나 무례했다면 용서해주십시오.≫

≪유격구도 인간들이 모여사는 곳이니 별명이 없을 수 없겠지. 그런데 그 별명은 너무도 야비하구만. 외눈깔이라고 하다니…≫

나는 김성도가 2중대의 대원을 체포해간 것보다 당장은 왕청 사람들이 그를 ≪외눈깔왕가≫라고 부르는 사실에 더 화가 났다.

어째서 김가를 왕가라고 하는가고 물으니 최춘국은 조선사람인 김성도가 중국사람 냄새를 너무 내고 간부들 앞에서 지나치게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꼬와서 간도 사람들이 그에게 ≪왕가≫라는 성을 붙여준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동만특위로 가던 길에 현당에 잠깐 들였더니 거기서도 김성도를 이름 대신 ≪외눈깔왕가≫라고 부르는 것이였다.

현당 사무실에서 이용국이 나에게 들려준 말에 의하면 김성도는 1927년에 벌써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화요파 만주총국의 어느 세포위원을 하다가 일본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매도 맞고 감옥밥도 먹어본 노당원이라고 하였다.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에는 재빨리 중국당에 전당하여 특위급 간부로 승진되었는데 곯아빠진 한쪽 눈의 허물을 감추느라고 그러는지 늘 색안경을 끼고 다부산자 차림으로 다닌다는 것이었다.

이용국은 김성도를 ≪날아가는 까마귀발에 버선이라도 신길 수 있는 수완가이고 변설가≫라고 평가하였다.

나는 동만특위 사무실에서 3시간쯤 김성도와 담화를 하였다.

정작 마주앉고 보니 그의 월권 행위를 문책하려던 결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측은한 감정부터 앞섰다. 곯아버린 눈과 몹시 지치듯해 보이는 컴컴한 얼굴표정으로부터 환기된 동정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한쪽 눈의 실명이라는 불우한 신체적 조건을 무릅쓰고 간도의 험산준령을 넘나드며 혁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얼마나 장하고 눈물겨운 일인가.

≪순시원동무, 동무는 우리와 토론도 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 공작 중에 있는 유격대원을 함부로 체포해갔소?≫

나는 음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예절있게 물었다. 김성도는 안경너머로 나를 유심히 보았다. 언감 특위 순시원도 몰라보고 당돌하게 문책을 들이대느냐고 사뭇 못마땅해 하는 듯한 눈치였다.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게 참 이상하구만. 그 대원의 월경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모순되는 민족주의의 표현이라는 것 모를 리 없겠는데…우린 그를 ≪민생단≫으로 보고 있소.≫

≪무슨 근거로?≫

≪조선에 갔다왔으니 민족주의인 것이고 민족주의의 오류를 범했은즉 그거야 ≪민생단≫이 아니고 뭐겠소.≫

≪그게 동무의 생각이오?≫

≪그렇소. 나의 상급도 그렇게 보고 있소.≫

나는 김성도가 이런 대답을 하였을 때 그가 괘씸하다는 생각보다도 가련하다는 생각이 앞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 아무런 과학적 타당성이나 진리성도 없는 망발에 분노를 표시하고 쇠망치와 같이 드센 논리로 그 망발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할 그런 정황에서 분노와 경멸 대신 일종의 동정심이 발동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김성도가 지니고 있는 일종의 동정심이 발동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김성도가 지니고 있는 허황한 편견과 유치한 사고방식이 동만특위 순시원이라는 요란한 직급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를 더욱더 가련한 존재로 보이게 하였던 것 같다.

(육체적 불구에 정신적으로 불구까지 겹쳤으니 저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인간인가. 색안경으로 밀정들의 목표물이 될 수 있는 애꾸눈을 가리우고 혁명을 위해 투신하는 그 기개야 물론 찬양받을 만한 것이지. 그 기개에 건전한 넋까지 담겨져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어떻게 되어 저 사람의 정신은 저렇게도 참혹하게 병들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보다 음성을 더 낮추어 조용조용 그를 타일렀다.

≪동무는 민족주의와 ≪민생단≫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양자를 감히 한 천평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소. 박석윤이나 조병상, 전성호와 같은 몇몇 민족주의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민생단≫을 조직했다고 해서 민족주의와 ≪민생단≫을 동일시하는 것이야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삼단논법이 아니겠소. 내가 알기로는 동무도 처음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주관하는 단체에 들었다가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근거로 삼아 동무에게 ≪민생단≫감투를 씌우면 납득이 가겠소? 어떻소?≫

김성도는 ≪그거야 어떻게…≫하면서 말끝을 얼버무렸다.

나는 그가 반성해볼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었다가 조리있게 설복을 계속하였다.

≪동무가 상부라고 한 것은 동장영 서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나는 그가 그렇게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만일 동장영 서기가 그런 실정을 잘 몰라서 일시적인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린다면 조선의 물정을 잘 아는 동무들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가 옳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조언을 주어야 하지 않겠소.≫

김성도는 그 말에도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체포당했던 2중대의 대원을 데리고 지휘부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나는 김성도가 가련하다는 생각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숙반공작을 진두지휘하기 전까지 이론투쟁 때문에 여러 번 충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 그러나 김성도가 ≪민생단≫숙청의 간판 밑에 견실한 혁명가들을 무수히 살해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를 더는 동정하지 않았다. 훗날 그 자신도 결국은 ≪민생단≫감투를 쓰고 처형되었다. 테러는 테러한테 망하고 좌경은 좌경의 심판대에서 죽는다는 것. 신념과 줏대가 없이 간에 붙었다 쓸에 붙었다 하는 사람에게 차례지는 운명은 자멸이라는 것이 수십 년에 걸치는 동란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내가 얻은 또 하나의 인생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초순에 마촌을 떠나 온성군 타막골 대안에 도착한 국내진출 대오는 솔골이라는 곳에 숙영지를 정하고 온성땅에 침투한 선발대를 기다리면서 일주일 가량 이 일대를 혁명화하여 반유격구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낮에는 송동산 서쪽 기슭에 가서 전투훈련을 하였고 밤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속에 지하조직을 꾸리는 일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만주국의 말단 행정책임자들인 십가장, 백가장들과의 사업도 하였다. 우리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혁명군대의 복무조례에 맞게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가졌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에 대해서는 매우 깨

조국진군의 첫 발자욱을 남긴 타막골

→

왕재산회의장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끗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유격대원들은 그때 솔골에 머물러 있으면서 농민들의 일손을 많이 도와주었다. 어떤 대원들은 산에서 싸리나무를 해다가 주인집 울타리까지 고쳐주었다.

박영순의 회상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도끼이야기도 바로 우리가 이 마을에 주둔해 있을 때에 생긴 일이였다. 어느날 나는 중국사람인 주인집 노인 부처의 일손을 덜어드리려고 도끼와 물초롱을 들고 두만강가로 나갔다. 이 지방 주민들은 겨울에 두만강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도끼나 곡괭이 같은 것으로 얼음을 깨고 구멍을 낸 다음 초롱에 물을 퍼가지고 돌아오면 그것이 곧 음료수가 되었다.

나도 그런 얼음구멍을 내려고 도끼를 들고 나갔다. 그런데 얼음을 다 까내려갔을 때 그만 자루가 빠지면서 그 구멍 속에 도끼가 미끄러져 들어갔다. 긴 장대기를 가지고 몇 시간동안 강바닥을 훑어보았으나 도끼는 좀처럼 나지지 않았다.

나는 주인집 노인에게 도끼값을 후히 치러주고 재삼 사과하였다. 노인은 대장어른께서 새벽마다 자기네를 도와 물을 길어 주신 것만도 고맙고 황송한 일인데 이 늙은 것이 힘이 없어서 혁명군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도끼값까지야 어떻게 받겠는가고 하면서 굳이 사양하였지만 나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이 고장을 떠나가버리면 내가 대장으로서 혁명군의 규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니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노인에게 값을 넉넉히 치뤄주었지만 내 머리에서는 얼음 구멍에 빠진 그 도끼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갚아주어도 손때 묻은 연장을 잃어버린 주인들의 아쉬움이야 어떻게 가셔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1959년 봄에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단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떠나갈 때 그들에게 양수천자의 그 노인을 만나면 나를 대신하여 사과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답사단이 양수천자에 찾아갔을 때는 유감스럽게도 그 노인은 이미 고인이 된 뒤였다.

두만강을 건넌 우리 일행이 선발대의 안내를 받으며 왕재산 마루에 오른 것은 오후 4~5시경이였다. 그때 육읍지구에서 온 혁명조직 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산능선과 이깔나무 수림에 숨어 있다가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나는 애어린 참나무들이 빼곡이 서 있는 그 산마루에서 한참 동안 주변의 풍경을 부감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이 고장의 일각은 3년도 되기 전에 옛모습을 바꾸고 있었다. 두루봉에서 국내당조직을 무을 때 볼 수 없었던 탕관의 버럭더미도 새로 생긴 풍경이였고 웅기(선봉)-온성선을 타고 달리는 열차 역시 1930년 가을이나 1931년 봄에는 볼 수 없었던 온성의 새 모습이였다.

산천과 함께 사람들도 성장하고 혁명도 전진하였다. 우리가 이 고장을 다녀간 후 육읍 일대와 그 주변에서는 새로운 반일 혁명조직들이 연속적으로 태어나 활동을 개시하였다. 육읍지구의 투사들은 치안통치를 담당한 일본 군부와 경찰수뇌들이 국경 경비의 만전을 자랑하는 조국의 북변 땅에서 혁명조직이라는 거대한 강철그물로 적의

1933년 3월 11일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회의가 진행된 곳

통치기구를 포위하고 있었다.

우리의 무장투쟁도 성장하였다, 유격대 무력은 동만지방만 보더라도 대대급으로 발전하였다. 각 현에 있는 대대들은 오래지 않아 연대로도 되고 사단으로도 될 것이다. 유격전쟁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력은 남만에도 있고 북만에도 있다. 우리의 사단들과 군단들이 조국땅에 진출하여 적들에게 철추를 내릴 그날은 머지 않았다. 벌써 우리가 그 선견대로 이렇게 온성 땅에 나오지 않았는가.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창덕학교 시절에 외할아버지한테서 배운 남이 장군의 한시를 입 속으로 조용히 외워보았다.

백두산석 마도진 (白頭山石 磨刀盡)
두만강수 음마무 (豆滿江水 飮馬無)
남아이십 미평국 (男兒二十 未平國)
후세수칭 대장부 (後世誰稱 大丈夫)

이 시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은 뜻으로 된다.

백두산의 돌은 칼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 먹여 다 말리리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평정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외할아버지는 그때 나에게 남이 장군이 북관의 적을 무찌르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쳐 20대에 벌써 병조판서가 되었다고 하면서 성주도 크거들랑 왜놈치는 대장이나 선봉장이 되라고 말씀해주었다.

나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남이 장군이 간신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데 대하여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크면 남이 장군처럼 외적을 치는 선봉에 서서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싸우리라고 결심하였다.

(남이 장군이 육진에 의거하여 북적을 막았다면 우리는 육읍의 반유격구에 의거하여 무장투쟁 국내로 깊이에로 확대하고 일제가 멸망할 함정을 파놓으리라!)

나는 왕재산 마루에서도 이런 맹세를 다졌다.

왕재산에 모인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 책임자들은 나에게 국내형편과 그동안의 활동정형을 보고 하였다.

나는 육읍을 비롯한 북부 국경지대에서 항일혁명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하여 고무해주고 정치공작원들과 혁명조직 책임자들 앞에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과업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내가 역점을 찍어 강조한 것이 반유격구 창설과 관련된 문제였다. 우리는 그때 온성 일대를 중심으로 국내의 여러 지역에 반유격구를 꾸리고 동시에 무성한 청림지대들에 비밀연락장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거점들을 마련함으로써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쌓으려고 하였다.

왕재산 회의에서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 밑에 전 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과업과 대중운동과 당창건 준비사업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국내 혁명조직들의 과업도 토의되었다.

유격대의 온성 진출은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서막으로 되었으며 민족해방투쟁 발전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이 진출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는 것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성한 임무이며 절대적인 권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신념과 입장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항일유격대의 온성진출과 왕재산회의의 전 과정은 완전유격구 주변과 국내에 반유격구를 창설할 데 대한 우리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과 간도와 육읍 일대에 반유격구를 건설할 수 있는 주객관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왕재산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경원(새별)의 유다섬과 박석골, 종성군 신흥촌 금산봉을 비롯한 국내 여러 곳에 진출하여 회의도 하고 강습도 하고 정치공작도 하였다. 이 진출의 주요 목적은 국내 혁명조직 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에게 지하혁명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법을 배워주려는 데 있었다.

우리가 국내에 나가서 혁명가들을 자주 만난 것은 그들을 주체적인 혁명노선과 사업방법으로 무장시켜 복잡한 실천투쟁을 용의주도하게 이끌고 나갈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시키자는 데 있었다. 국내 혁명조직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을 정치실무적으로 잘 준비시키는 것은 반유격구를 성과적으로 꾸리기 위한 선결조건이였다.

그 당시 우리가 파견한 지도핵심들은 국내 깊이에 침투하여 반일항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노조, 농조들에 뿌리를 뻗쳤으며 도처에서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였다. 우리의 공작원들은 서울을 비롯한 남부조선 일대에도 줄을 늘렸다.

육읍지구의 반유격구들을 튼튼히 꾸리고 국내 혁명운동을 앙양시키는데서 두만강 연안에 꾸려진 당조직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후 동만의 지도간부들은 반유격구 건설에 관한 우리의 제안을 방침으로 채택하고 그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을 명시하였다. 반유격구를 건설해야 한다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대하여 우경이라고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비평은 즉석에서 신랄한 반격에 부딪쳤다.

동만의 소비에트구역들에서는 1933년 봄부터 반유격구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라자구, 다홍왜, 전각루, 량수천자 등 왕청지구와 연길, 훈춘, 안도, 화룡 지구의 넓은 지역에 반 유격구가 꾸려졌다. 이 시기에 창설된 반유격구들은 항일무장투쟁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완전유격구들 가운데서 방어하기에 불리한 일부 지역들도 반유격구로 전환하였다,

(내일 계속)

선군의 기치밑에 백승의 력사를 창조한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영광이 있으라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4월 25일

주체위업은 백두산장군의 총대위업이며 우리 조국은 무적의 군력으로 세계에 존엄 떨치는 불패의 사회주의군사강국이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수 놓아 가는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불멸의 전투적위훈으로 빛나는 군기들이 높이 휘날리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전군, 전민이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게 된다.

뜻 깊은 건군절을 맞으며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신 천출위인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이며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불패성의 기치이다. 우리 혁명이 걸어 온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도 우리 혁명무력의 전투적행로가 수 놓아 져 있고 이 땅에 빛을 뿌리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들에도 우리 군대의 불멸의 위훈이 깃들어 있다. 우리 군대의 력사이자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이다. 조선인민군절을 전 국가적, 전 인민적인 승리의 명절로 기념하는것은 총대와 함께 전진하여 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건군 70돐을 맞이하는 온 나라에는 지금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떨쳐 가는 승리자의 영예와 긍지가 차 넘치고 있다. 우리 시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의 강화발전력사에서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최성기가 펼쳐 진 시대, 선군정치의 위력이 세계를 진감하는 격동적인 시대이다. 20세기 30년대 초에 백두의 빨찌산대장 **김일성**장군의 령도밑에 반제혁명의 첫 총성을 울린 우리 혁명무력은 오늘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의 령도밑에 21세기 자주위업 승리의 길을 앞장에서 열어 나가는 강력한 주력군으로, 그 어떤 침략자도 타승하는 세계적강군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뜻 깊은 올해에 맞이하는 건군 70돐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백전백승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긍지 높은 사변으로, 무적의 총대를 앞세우고 강성대국의 빛나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김일성**민족의 혁명적기상을 힘 있게 떨치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된다.

지금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주체혁명의 년대기들에 빛나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건군업적을 되새겨 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갈 불 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우리 혁명무력이 걸어 온 70년의 력사는 자기 창건자, 령도자의 사상과 위업, 혈통을 총대로 받들어 온 백두산혁명강군의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입니다.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라고 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라는것입니다.≫

우리 군대의 창건과 강화발전의 전 력사는 총대중시를 혁명의 근본으로 내세운 백두산장군들의 력사로 수 놓아 져 있다. 혁명을 개척하고 이끌어 온 수령의 력사와 혁명무력의 력사가 일치한것은 우리 혁명에서만 있을수 있는 더 없는 긍지이고 영광이다.

우리 군대는 첫 걸음부터 수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존엄 떨쳐 왔다. 일찌기 타도제국주의구호밑에 두자루의 총으로 혁명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대이자 혁명이고 민족의 생명이라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수령의 사상과 의지를 그대로 구현한 주체형의 첫 혁명무력이 창건됨으로써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다. 독창적인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군대부터 창건하시고 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간고하고도 준엄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신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출한 위인상과 업적이 있다.

70성상의 장구한 기간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서의 우리 군대의 성격과 혈통은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 우리 혁명무장력이 언제나 높이 추켜 든 기치는 수령의 혁명사상이였고 우리 군대가 목숨바쳐 고수해 온것도 수령의 위업과 업적이였다. 혁명의 수령은 군대를 틀어 쥐고 그에 의거하여 백승을 떨치고 군대는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혈통만을 알고 꿋꿋이 고수해 온것이 우리 혁명의 긍지 높은 력사이다. 우리 군대야말로 백두산3대장군의 슬하에서 자라난 혁명강군이며 우리 혁명의 력사야말로 총대와 더불어 빛나는 위대한 선군의 력사이다.

우리 군대의 70년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사상을 생명선으로 하여 강화발전되여 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혁명군대의 불패성이자 군사전략사상의 위대성이다. 력사상의 그 어느 군대와도 구별되는 우리 군대의 근본특성은 주체의 원리를 구현한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강화발전되여 온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군사사상은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군사문제를 풀어 나가는 사람중심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이며 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강화하는 문제로부터 전략과 전법에 이르기까지 현 시대 군사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군사사상이다. 여기에는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 지는 자주시대 군건설의 실천적요구가 반영되여 있으며 두차례의 혁명전쟁경험과 세계전쟁사의 교훈이 집대성되여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군건설사상과 그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는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자기 발전의 독창적인 길을 걸어 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전군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길에서 현대전의 특성과 우리의 실정에 맞는 수많은 전략과 전법들이 창조되게 되였으며 우리 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되였다.

정치사상적우세, 전략전술적우세로 적을 타승하는 군대, 무적의 군사기술적위력으로 제국주의침략세력을 제압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불패의 혁명강군이 백두령장들의 군사전략사상과 로선에 기초하여 건설된 우리 인민군대이다.

우리 군대의 70년 력사는 혁명의 수뇌부옹위의 제일선에서 조선혁명의 명맥을 수호해 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혁명의 수뇌부옹위는 혁명무력의 최대의 사명이다. 위대한 혁명의 수뇌부가 없이는 불패의 무력도, 혁명도 있을수 없다.

우리 혁명이 걸어 온 길에는 제국주의자들과 피의 결전을 벌려야 했던 준엄한 전쟁도 있었고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속에서 사회주의와 인류의 운명을 지키는 사생결단의 대결도 있었다. 우리 혁명이 그처럼 엄혹한 시련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붉은기높이 언제나 백승을 떨쳐 올수 있은것은 혁명의 수뇌부가 위대하고 우리 군대가 결사의 각오로 수뇌부를 목숨 바쳐 보위해 온데 있다.

혁명의 어느 단계, 어느 시기에나 우리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는 총 쥔 무장대오가 철벽의 성새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군대는 자기의 최고사령관을 위해서라면 피어린 결전장에도 서슴없이 뛰여 들었고 우리의 총대는 수뇌부를 해치려는 적들과의 투쟁에서 추호의 타협도 없었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군대가 처음으로 창조하고 피와 생명을 바치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구현해 온 절대의 좌우명이며 세대와 세기를 이어 넘겨 주고 넘겨 받은 불멸의 전통이다.

우리혁명에서 령도의 계승문제가 전면에 나서던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를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는데서 전위적인 역할을 수행한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최대의 자랑으로 된다. 항일의 불길속을 헤쳐 온 1세대 투사들로부터 새 세대 장병들에 이르기까지 전군이 당의 기초축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가 되여 왔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최고사령관으로 받들어 나가는데서도 앞장 서왔다.

오늘 우리 군대는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영원한 심장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자기 최고사령관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투쟁하는 신념의 강군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결사의 신념으로 받들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옹호보위해 온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 온 70년 력사가 끝없이 빛나는것이다.

우리 군대의 70년 력사는 주체혁명의 주력군이 되여 수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온 긍지 높은 력사이다.

강력한 무장대오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혁명의 모든 난국이 타개되고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 군대가 혁명의 기둥이 되여 수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고 인민은 군대를 따라 과감히 싸워 나가는 여기에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이 승승장구하는 참다운 길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에서는 일찌기 주체형의 당의 뿌리도, 인민정권의 원형도 무장대오에 의하여 마련되였고 일심단결의 전통과 불굴의 혁명정신도 혁명무력에 의하여 창조되였다. 우리 군대는 조선혁명의 전 로정에서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앞장에서 실현해 간 전위대였고 간고한 투쟁의 돌격로를 개척한 기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 인민의 거울이였다. 우리 군대의 핵심적역할을 떠나서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번영과 그 휘황한 전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자기 령도자의 위업을 앞장에서 실현하는 우리 군대의 기질은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최고의 높이에서 발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부르시는 혁명의 가장 어려운 전초선들에 남 먼저 달려 간것도 우리 군대이고 선군시대를 추동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한것도 우리 군대이며 주체조선의 슬기와 위용을 떨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것도 우리 군대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가장 충직한 동지, 제일 충신이 되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인민군대가 있기에 동지애로 굳게 뭉친 당과 혁명대오의 위력이 천백배로 강화되고 온 나라에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투쟁기풍이 차넘치고 있다. 우리 군대와 같이 자기 최고사령관의 구상과 의도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물불을 가림없이 실현해 나가는 결사관철의 무장대오는 없다.

우리 군대의 70년 력사는 가장 첨예한 반제투쟁의 전초선에서 사회주의의 기치를 수호해 온 세계적강군의 력사이다.

혁명군대의 영예와 존엄은 단 한번의 패배도 모르는 백승의 위훈에 있다.

우리 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20세기 반제혁명투쟁사에 길이 빛날 군사적기적을 창조한 긍지 높은 군대이다. 우리 혁명무력이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본제국주의를 격멸하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를 타승한것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대중의 위업에 기여한 불멸의 군사적업적으로 된다.

세계전쟁사에 류례 없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한 우리 혁명무력의 명성과 위력은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이룩된 20세기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위대한 승리로 하여 더욱 높이 떨쳐 지고 있다.

비범한 지략과 담대한 배짱으로 천만대적을 전률케 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군사와 정치, 사상과 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한 근본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군대가 없었다면 령토도 크지 않고 분렬된 우리 나라가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기치를 수호할수 없었을것이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제국주의를 쥐락펴락하는 세계적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의 력사야말로 그 어느 나라 건군사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불멸의 위훈과 승리로 빛나는 자랑찬 로정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

→

는 우리 인민군대는 주체의 혈통을 끗끗이 이어 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영광 떨치고 있다.

혁명군대의 성격과 혈통은 수령의 건군위업을 이어 나가는 위대한 최고사령관에 의하여 계승된다. 혁명군대의 최대의 영광은 대를 이어 령장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민군대에 대한 령도는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튼튼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넘겨 주시였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틀어 쥐고 우리 군대를 세계제일의 강군으로 키워 오시였다. 혁명군대를 창건한 선대최고사령관의 선견지명과 혁명의 계주봉을 이어 받은 위대한 령장의 계승성 있는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의 백전백승의 력사가 끊임없이 수 놓아 져 왔다. 두분의 위대한 백두령장에 의하여 총대의 계승이 가장 빛나게 실현된것은 우리 혁명의 크나큰 자랑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총대를 틀어 쥐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 나가시는 위대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항일대전의 총포성이 울리는 백두산에서 탄생하시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령장의 담력과 령군술을 키우시였으며 총대를 변하지 않는 동지로 여기시고 혁명활동의 전 로정을 빛내여 오신 **김정일**동지와 같은 장군형의 정치가, 희세의 령장은 없다. 력사상 처음으로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혁명철학을 창시하신분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며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시대적귀감을 창조하신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군사적예지와 지략이 천재적이고 담력과 의지가 비길데없이 강하며 령군술이 비범한 위대한 령장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 군대가 자기 발전의 최성기를 맞이하고 있는것이다.

우리 군대의 강화발전의 력사는 전군이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사상과 의지, 기질을 닮아 가는 영광스러운 나날이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그 강화발전의 력사로 보나 혈통과 성격으로 보나 오직 위대한 백두령장의 존함과만 함께 부를수 있는 **김정일**혁명강군이다. 우리 군대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생명선으로 하고 **김정일**동지의 기질을 체질화하고 있으며 오직 **김정일**동지식대로 싸워 나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령도를 받는 우리 군대는 사생결단의 의지로 싸워 기어이 승리하는 불패의 강군이다.

적과의 대결은 무장의 대결이기전에 정신의 대결이다. 결사의 의지를 지닌 군대가 타승 못할 강적이란 있을수 없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근저에는 사생결단의 의지가 놓여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이 세상에 없다는 필승의 신념, 우리를 건드리는 원쑤들과는 지구가 깨여 져도 결판을 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지니시고 우리 군대를 이끄신다. 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려는 **김정일**동지의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원칙성이 우리 무장력의 정신력이 되고 무비의 용맹과 투지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가 발휘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도, 전체 장령, 군관, 전사들이 체질화한 견결한 반제투쟁정신도 죽음을 각오한 결사의 의지에서 나오는것이다.

백두령장의 사생결단의 뜻으로 싸워 나가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제국주의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유화정책에는 혁명적원칙성으로 대답해 나서며 적들과의 그 어떤 대결에서도 승리만을 떨치고 있다.

백두령장 **김정일**장군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의 군사적위력을 지닌 불패의 혁명무력이다.

적과의 싸움은 철과 철이 부딪치고 불과 불이 오가는 힘의 대결이다. 사상과 정신이 강할뿐아니라 전략과 전술, 전법이 우세하고 현대적군사기술과 무장장비를 갖춘 군대만이 백번 싸워 백번 승리할수 있다.

우리 군대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동지의 군사적슬기와 기질을 그대로 체현하고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마련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사회주의군사강국의 기둥이다. 그 어느 군사책략가도 가늠할수 없는 **김정일**동지의 신묘한 지략과 백발백중하는 만능의 전법으로 싸우고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적의 아성도 짓뭉갤수 있는 강력한 타격수단을 갖춘것이 우리 군대이다. 70성상의 장구한 로정에서 백승의 경험을 쌓아 왔으며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군사기술적힘을 키워 온 우리 군대처럼 무적의 위용 떨치는 혁명군대는 없다. 우리 인민군대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오만하고 파렴치한 침략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그 누구든지 감히 우리 조국의 한치의 땅이라도 침범한다면 상상할수 없는 타격을 면치 못할것이며 차례질것이란 무주고혼의 운명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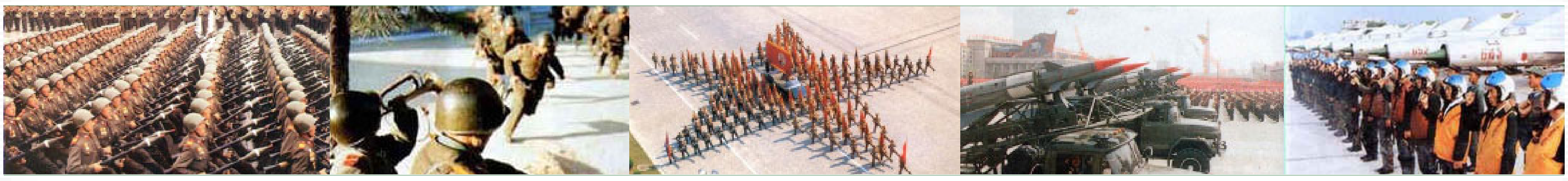
백두령장 **김정일**장군의 령도를 받는 우리 군대는 관병일치, 군민일치, 군정배합을 빛나게 실현한 세상에 둘도 없는 혁명무장력이다.

관병일치, 군민일치, 군정배합은 우리 군대만이 가질수 있는 우월성이다. 관병이 생사를 같이 하고 군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며 군사지휘관과 정치일군이 일심동체가 될 때 혁명군대가 무한대한 힘을 지닌 강군으로 될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에서는 관병일치, 상하일치가 확고히 실현되고 있다. 우리 군대에서 지휘관과 병사들과의 관계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참된 동지적관계로 되고 있으며 군사지휘관과 정치일군들이 한마음한뜻이 되고 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병사들은 지휘관들을 맏형, 맏누이로 믿고 따르는것이 전군에 지배하는 고결한 풍모이다. 지금 우리 인민군대에서는 지휘관이 자기 병사들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 바치고 터지는 수류탄도 몸으로 덮으며 병사들이 자기 지휘관을 존경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숭고한 희생정신, 전우애가 높이 발현되고 있다. 군사일군과 정치일군, 지휘관과 병사들이 하나의 동지가 되여 죽음판에도 함께 뛰여들고 함께 싸워 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야말로 완전한 일심일체의 대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선군시대 군민일치의 새로운 장을 펼쳐 놓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그 첫 걸음부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아들딸들로 조직되였으며 자기 발전의 전 력사에서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같이 해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지향과 념원도, 사상과 투쟁기풍도 하나인 친혈육이다. 인민은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군대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며 군대는 인민의 생명재산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는것이 군민일치가 확고히 실현된 우리 나라의 참모습이다. 총대중시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는 인민의 강력한 지지와 원호를 받고 있기에 우리 혁명무력은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 갈것이다.

백전백승은 우리 혁명무력의 영원한 전통이며 **김정일**혁명강군의 참모습이다. 우리 인민은 지금 천하제일명장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아래 사상과 신념의 강군,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의 위력에서 우리 혁명의 밝은 앞날과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성 있게 내다보고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해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21세기 우리의 진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붉은기를 높이 휘날리며 승리만을 수 놓아 온 우리 군대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김정일**혁명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그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백두산3대장군의 선군력사와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 나가야 한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선군전통에는 건군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한생이 빛나고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가 새겨 져 있다. 백두의 령장들의 선군력사와 전통은 주체혁명의 밑뿌리이다. 우리는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백두산3대장군의 군건설력사와 업적을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국보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며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튼튼히 틀어 쥐고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빛나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를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정일**동지의 군대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혁명무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이다.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언제나 무적필승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력사상의 그 어느 군대도 지녀 보지 못한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수뇌부옹위의 구호를 제일 좌우명으로 삼고 싸워 나가야 한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인민군대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총폭탄대오로 만들어야 한다. 전군에 최고사령관명령에 절대복종하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며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의 전투적위력에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강성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무모한 군사적강경정책에 계속 매여 달리고 있으며 ≪핵무기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허장성세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언제나 긴장하고 동원된 태세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전쟁의 불집을 일으킨다면 우리 군대는 적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고 침략자들이 다시는 살아서 범접하지 못하게 철저히 괴멸시킬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선군정치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인민의 거울이 되며 혁명의 기수가 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군력강화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군대로 빛을 뿌리고 있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자랑 떨치고 있는 우리 군대에 대한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틀어쥐고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밀고 나가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누구나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껏 원호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언제든지 한번은 결판을 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전국을 그 어떤 침략자도 건드릴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한다.

군민이 단합된 힘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무적의 군력은 강력한 국가경제력에 의하여서만 담보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다져 진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 진군에서 힘 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며 인민들은 혁명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 없는 기적을 창조하여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을 구현한 라남의 봉화를 새 세기 비약과 혁신의 봉화로 높이 추켜 들고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며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를 개건현대화하여야 한다.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세계적인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주체형의 첫 무장대오가 탄생한 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밝은 미래가 펼쳐 져 있다. 세대와 세기는 바뀌고 투쟁조건과 환경도 달라 졌지만 우리의 사상과 위업, 혈통은 오늘도, 래일도 변함이 있을수 없다. 가는 앞길에 폭풍과 불바다가 가로 놓인다 해도 백두산3대장군을 따라 전진하여 온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추호도 물러 섬이 없이 총대를 틀어 쥐고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 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 군대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제일근위대, 주체혁명의 강력한 주력군으로 위용 떨칠것이며 성스러운 군기에 백승의 위훈만을 아로새길것이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 만세! (끝)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강철의 영장이시다.
제5회 - 학사 한원용선생 주체91, 4월 24일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를 지니시고 인민군 전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를 지니시고 인민군 전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군대의 위력은 관등급에 따라 상호간의 명령과 복종 관계를 철저히 확립하는데서만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명령과 복종만이 아니라 최고사령관과 인민군 장병들 사이에 사랑과 의리, 동지애로 굳게 결합되어서 전군이 일심단결,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있습니다. 인민군 장병들을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할 동지로 보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애에 의해서 선군시대의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동지애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혁명은 동지를 얻고 동지적 사랑을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동지애의 위력에 의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뜨거운 동지애로 하는 것이 혁명투쟁이고 걸음걸음 동지적 사랑과 믿음으로 수놓아 지는 것이 혁명가의 인생행로입니다. 언제인가 한생을 총화 지으시는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한 평생은 동지들 속에서 흘러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물려주신 유산중의 유산도 동지애의 전통이였습니다. 동지애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지애의 힘으로 주체위업을 완성하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영도의 나날 인민군 장병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혁명의 길에서 최고사령관과 혁명전사들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명령과 복종의 관계, 규율과 의무의 관계가 아닙니다. 명령위에 영도자의 믿음과 사랑이 있고 규율위에 전사의 도덕의리가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명령을 내려도 혁명전사들에게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내리시고 혁명전사들은 군사명령을 받들어도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의리로 받들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충성과 의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믿음과 사랑 충성과 의리로 뭉친 집단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에게 어떤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2월 16일, 4월 15일, 설날을 비롯해서 뜻깊은 명절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보내시군 하십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영도자나 군 사령관들도 자신의 생일날만은 집에서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의 축복 속에 보내거나 국가적인 연회를 차려놓고 즐기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뜻깊은 명절을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보내시는 것을 제일 기쁘고 즐겁다고 하십니다.

주체87(1998)년 4월 15일 태양절의 아침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일군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멀고 험한 길을 걷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의향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말씀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태양절을 맞고보니 수령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병사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군인들이 명절을 어떻게 쇠는지 찾아가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먼 전선길을 달려 천령을 넘으시고 전선동부의 어느 한 부대의 지휘부에 이르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

최고사령관과 군인들 사이에 믿음과 사랑, 충성과 의리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숭고한 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 혼연일체가 이루어져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시고 현지지도 사적들을 돌아보신 다음에 중대들에 들리시여 군인들의 생활조건을 일일이 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친어버이 사랑에 중대 군인들은 어려움도 다 잊고 장군님께 사진을 찍어주실 것을 말씀올렸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나의 병사들이 찍자면 사진을 찍어야지 하고 말씀하시면서 군인들을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대 군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영광의 기념시진을 찍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명절을 맞는 군인들을 위해 마련해 가지고 오신 음식으로 부대 종합식당에서는 연회가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면서 오늘 나는 최전연 초소에서 첫 태양절을 맞이하고 있는 장병들과 함께 명절을 쇠러 왔다고 나는 사령부 안의 장병들과 관하 부대의 지휘관, 정치일군들과 함께 뜻깊은 태양절을 쇠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모두들 마음껏 들면서 태양절을 즐겁게 보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회 참가자들 모두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끝없는 감사의 정과 축원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렸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맙다고, 건강하여 일을 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이나 동무들이나 전사들이나 다 혁명의 한길에 나선 혁명전우들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이나 인민군 장병들이나 다 같이 혁명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전우라는 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관입니다. 또,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있을 때를 가장 즐겁게 여기시는 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행복관입니다. 그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병사들을 위해서는 아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셨습니다.

주체84(1995)년 2월 2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성 해안포중대를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사물함에 있는 크림통을 보시자 손수 뚜껑을 여시고 냄새를 맡아보셨습니다. 이때 옆에 있었던 지휘관이 얼굴과 손에 크림과 함께 분을 바르고 전투근무에 나가면 잘 트지 않는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크림과 분을 해결해 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지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닷바람에 여성군인들의 얼굴이 튼 것이 마음에 걸리시여 고약과 약크림이 든 봉투를 손수 보내주셨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 ≪이 약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여성 해안포중대장이 바닷바람에 얼굴이 텃다는 것을 아시고 의사에게 당장 가서 고약과 약크림을 가져다가 보내주라고 말씀이 계시여 보내는 것입니다.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쓴 한 장의 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약봉투를 전달받고 중대장을 비롯한 여성군인들은 너무도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성 해안포병과 약크림≫이라는 혁명일화가 생겨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제소금공장을 건설하였을 때에는 이제는 우리 인민군 군인들에게 맛있고 질좋은 간장과 소금을 먹이려는 나의 소원이 풀렸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선 동부의 최전연인 351고지에서 초병들이 입은 솜동복의 두터우를 몸소 가늠해 보시고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솜을 두툼히 넣도록 긴급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중대 병실에 들리실 때에는 방안 온도부터 가늠해 보시고 창문의 수를 줄이고 작게 만들도록 가르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혁명일화 ≪병사들을 위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체86(1997)년 9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중흡7연대칭호 쟁취를 위한 관정검열을 받고 있는 어느 한 공병부대를 시찰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그이께서는 벽에 걸린 게시판에서 좀처럼 눈길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게시판에는 ≪병사들을 위한 날≫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병사들을 위한 날≫을 정해놓고 지휘관들과 그 아내들이 매일 하루씩 맡아가지고 식당에 나와 군인들에게 맛좋은 음식을 푸짐히 차려주군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게시판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언제나 고향집 어머니의 애틋한 정을 느끼도록 하고 관병일치의 미풍이 보다 높이 발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대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이 지난 기간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영도의 나날, 매일과 같이 인민군 부대들을 찾으시면서 군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사령관과 군인들 사이에 믿음과 사랑, 충성과 의리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숭고한 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 혼연일체가 이루어져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기본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6차 부평미군기지반미연대집회

이미 보도된 것처럼 범민련 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인천대학교학생연대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대학생들은 지난 20일 부평 미군기지앞에서 제6차 부평미군기지반미연대집회를 갖고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체결과 ≪F-15K≫기 도입을 규탄배격했습니다.

집회에서 연사들은 한결같이 연합토지관리계획체결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F-15K≫기 도입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결과만을 가할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반미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롯데백화점앞에서는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등 각계 시민들이 부평미군기지이전비용부담반대, 환경오염원상복구를 주장하는 서명 및 선전전을 힘차게 벌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적 의지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25일에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이 땅에서 기지로 사용하던 불모의 땅 4194만평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반환하는 대신 오산, 평택, 의정부, 포항 등에 있는 땅 154만평을 미군기지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미군기지이전과 신설을 위해 무려 11억달러의 자금을 ≪한국≫이 미군측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 및 신설책동이 미군의 환경오염책동으로 쓸모없게 된 불모의 땅을 노른자위 땅으로 바꾸기 위한 책동이며 더욱이는 북침을 위한 군사전략에 따른 북침전쟁책동의 일환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신설책동이 실현될 경우 수많은 귀중한 우리의 땅이 또다시 황폐화될 것은 물론 새로운 전쟁위험이 증대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한미군기지는 지금 이 땅에서 전쟁과 살육, 공포의 발원지로, 저질문화와 환경오염, 소음공해, 마약유출 등 각종 사회악의 온상지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와 미군기지반환을 요구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온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마치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우리 국민을 우롱하며 북침전쟁준비에 따른 군사기지재배치를 꾀하면서 이 땅에 대한 영구강점기도를 드러내놓고 있으니 참으로 분격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F-15K≫기 구매강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북침전쟁을 위한 것으로써 남북의 화해와 통일분위기에 역행하는 반평화, 반통일책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F-15K≫기 구매강요는 그 누구를 위한 선사품이 아니며 판로가 막혀버린 낡은 기종을 저들의 식민지 이 땅에 들이밀어 위기에 처한 미국의 군수업체들을 구출하자는데 그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식민지 이 땅에 대한 종주국인 미국의 오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군당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매국적인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을 체결하고 6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까지 미국 군수업체들에 퍼부으며 낡은 소품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친미사대매국이 골수에까지 들어찬 역적들만이 할 수 있는 매국배족행위라 하겠습니다.

한미토지관리계획협정과 ≪F-15K≫기 선정이 발표되자마자 온 국민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결연한 반미투쟁의지를 똑바로 보고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연합토지관리계획과 ≪F-15K≫기 구매강요를 당장 취소하고 이 땅에서 물러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울러 군당국자들은 저들의 사대매국행위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반역적인 친미사대매국행위를 그만두어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5일

1300만이 하나가 되자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대중의 생존권사수투쟁. 이 투쟁에서 단결이 갖는 의미는 참으로 큰 겁니다. 그럼 이번엔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 김성용씨의 글 ≪1300만이 하나가 되자≫를 소개해 드리죠.

철도와 발전노조의 공기업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이 한참 계속되고 있을 때 전국적 범위에서 4시간에 걸쳐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강행되었다.

최근 울산 현대자동차노조원 2만여명을 비롯해서 같은 시간에 기아자동차노조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3천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조파업집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이 4시간의 연대파업에는 무려 13여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전국적으로 13만여명이 참가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물론 이 연대파업으로 당장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공기업민영화반대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크게 관철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연대파업은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다. 노동자대중의 권익이 투쟁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고 이 투쟁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힘의 원천이 단결에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이 땅의 1300만 노동대중도 얼마든지 단결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결의 과시가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침탈책동으로 이 땅의 경제는 파산으로 줄달음치고 있고 우리 민중의 생활처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노동대중이다.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실직과 그로인한 가정파괴, 자살참극이라는 가슴아픈 현실을 가져다주었다. 힘든 노동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힘들게 일해왔지만 차례진 것이란 뼈를 깎는 고통뿐이었다. 가진 것이란 빈 두주먹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길도, 물러설 곳도 없는 것이다.

노동자 자신들에게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정당한 삶의 권리, 생존의 권리를 지키는 길은 투쟁밖에 없는 것이다. 또 투쟁 역시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노동자들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투쟁이 곧 삶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대중이 자기들의 삶을 지켜내자면 힘이 있어야 한다. 한두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이 바로 단결이다.

1300만 노동대중이 하나로 똘똘 뭉친 단결의 힘만이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한번, 두번이 아니라 세번, 네번 계속 끊임없이 연대의식을 높여나가고 단결을 도모해 간다면, 이번 연대파업과 같은 그러한 단결의 과시를 계속 줄기차게 이어나간다면 능히 1300만 노동대중의 단결을 이루어낼 수 있고 나아가서 노동자가 주인된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도 안아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번 연대파업이 갖는 의미의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연대파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4일

부산시민이 함께 부르는 통일의 노래 ≪아리랑≫

아리랑축전 홍보와 반통일세력 반대의 내용으로 시민들 눈길...

지난 4월 21일 늦은 3시 부산역에서는 통일시대 젊은 벗에서 2002년 첫번째 통일광장을 진행하였다.

이번 통일광장은 아리랑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부산시민이 함께 부르는 통일의 노래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무대행사를 중심으로 한 노래, 풍물, 몸짓 공연과 주변행사로는 분과별로 준비한 각종 선전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무대행사는 부산지역 풍물굿패 ≪폭풍(준)≫의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부산역 광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순식간에 200여명이 모여들며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주었다. 우리민족의 가락에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는 시민들과 박수를 치며 호응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통일광장의 분위기는 무르익기 시작하였다.

계속해서 통일시대 젊은벗 노래모임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부산교대 몸짓패의 몸짓 공연은 시민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다.

통일시대 젊은벗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아리랑 시스터즈의 의상과 율동은 시민들의 많은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그리고 부산문학예술공동체 노래모임의 공연과 부산교대의 몸짓을 끝으로 무대행사는 막을 내렸다.

한편 다양한 주변행사가 진행되었다.

1분과에서 준비한 ≪미국 두더지 잡기≫에는 부모님과 함께 주변을 지나던 어린이들이 많은 참여가 관심을 보였으며, 2분과에서 진행한 ≪미국상품불배운동 광고탑≫에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3분과는 아리랑 축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선전하였으며, 4분과는 하야리야 이전비용에 대한 내용을 선전마당에 표현하였다. 5분과는 이회창의 반통일성을 만평으로 표현하여 빌라사건을 풍자한 천막(이회창의 집)에 전시하였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반통일 쪽자를 만들어 주는 행사도 곁들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그외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아리랑엽서선언과 판매도 진행하였다.

앞으로 통일시대 젊은 벗은 계속적인 아리랑 축전이 가지는 의미를 계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아리랑축전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모으는 통일엽서선언운동을 전개해 이를 통해 6.15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2002년 민족공동행사 참가단을 모아나갈 것이다.

통일시대 젊은벗
2002/04/25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 정치≫

통일연대, 통일강좌 세 번째 강좌 개최

4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종로성당에서는 ≪통일연대와 민족21이 함께하는 통일강좌 3강≫이 개최되었다. 40여 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강은 민족통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자, 서울대 사회학 박사인 정영철씨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3강은 북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인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북에서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 그리고 전망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되었고, 1998년부터 북에서 주창하는 ≪선군 정치≫에 대한 해설과 북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강연에서 참석자들은 진지한 분위기와 열띤 탐구로 일관했고, 강연이 끝나고는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선군 정치에서의 당 강화의 의미≫와 ≪국방위원회 조직 체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강좌가 끝나고 참석한 수강생들은 ≪남북 특사회담과 남북 단체 실무접촉으로 다시 6·15공동선언 실현의 본궤도에 오른 한반도의 정국에서 통일일꾼들의 목마른 정세인식과 북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리며 다음 4강을 기약하였다.

※ 통일강좌는 5월 15일까지 총 6강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1강 ≪북의 대외정책 변화와 동북아정세≫, 2강 ≪북의 정치체제와 정책 결정 구조≫, 3강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정치≫가 진행되었고, 5월 1일에는 4강 ≪북의 사회와 주민생활≫이 경남대 북한대학원 객원 교수이자, 민족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인 김귀옥님의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연대 2002/04/26

울산,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예비경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경선이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당원들이 참가하는 총투표 형식으로 치뤄져 울산시장 후보에 송철호, 동구청장 후보에 이갑용, 북구청장 후보에 이상범, 중구청장 후보에 성보경, 남구청장 후보에 김진석, 울주군수 후보에 김종길 등 기초단체장 후보를 비롯하여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를 확정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합동총회 형식으로 지난 4월 17일~19일까지 실시한 총투표에는 42,694명(투표율 71.4%)이 투표에 참가했다.

울산시장 후보에 출마한 송철호 변호사는 1만9,965표(46.7%)를 얻어 1만9,591표(45.8%)를 얻은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장을 374표의 근소한 차로 이겼으나 무효표가 3,167표나 나와 두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에 실패했다.

그러나 김창현 후보가 승복함으로써 송철호 후보가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었다.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밀집해 있는 북구에서는 이상범 후보가 현 구청장인 조승수 후보를 1천여 표차로 누르고 민주노동당 북구청장 후보가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의 밀집지역인 동구에서는 노조 위원장 및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갑용 후보가 현 시의원인 조규대 후보를 이기고 민주노동당 동구청장 후보로 당선됐다.

참세상뉴스 2002/04/26

이문옥씨 진보계 서울시장 출마

90년 5월 감사원의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와 감사중단 비리를 폭로해 구속과 함께 직위해제됐던 이문옥 전 감사관이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 전 감사관은 ≪이문옥 선생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사람들≫측으로부터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제의받고 22일 최종 수락했다.

이 전 감사관이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뛰어들면서 이미 지난 12일 범진보진영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제를 제안하며 후보출마를 발표했던 양연수 위원장(종로구)과의 2파전이 예상됐으나 양 위원장이 경선출마를 거둬들여 사실상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현재 진보정당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로는 이문옥 전 감사관 외에 원용수 사회당 대표가 있다. ≪내부고발자≫의 상징적 인물인 이 전 감사관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옥풍≫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구영식기자
오마이뉴스 2002/04/23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25일 헌법재판소(주심 김경일 재판관, 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아래 가석방규칙)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준법서약제도는 장기수 등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가석방규칙은 국보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 가석방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해 10월 만들어졌다. 그간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제도가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강제로 표명하게 하는 사상전향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준법서약은 명령이 아니다?

하지만 헌재는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 서약에 불과≫하고,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일 뿐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석방규칙은 수형자에게 준법서약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형자는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준법서약서가 소위 시국사범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대남혁명전략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차별을 합리화했다. 시국사범에게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를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방어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이 헌재의 논리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김효종 재판관 등은 ≪가석방규칙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설령 그러한(폭력적인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그들로 하여금 …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게 대한민국 법의 준수의사를 강요하거나 고백시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실망스럽고 위험한 결정

이날 헌재의 결정을 접한 인권단체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가협 송소연 간사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준법서약서에 대해 헌재가 다시 손을 들어준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주영 캠페인팀장은 ≪기본적으로 준법서약서는 한 인간의 사상을 검증하는 절차에 다름 아니≫라며 헌재의 논리를 반박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에서 ≪인간의 내면에 기어코 간섭하여 통제해야겠다는 억압적인 반인권 제도를 엄호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온몸을 내던졌다≫며 합헌결정을 규탄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했던 김승교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남북관계를 근거로 차별을 합리화한 냉전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백번 양보해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재는 준법서약제도가 왜 (국보법 위반자가 아닌) 집시법 위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돼야 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범용 기자
인권하루소식 2002/04/26

통일연대가 한총련 합법화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

지난 4월 11,12일 남과 북의 실무대표들이 금강산에서 만나 올해 통일운동의 방향과 공동의 실천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헌데 이러한 만남을 할 때 마다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야기 하는 자리에 특정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누구 보다 지지하고 이를 위해 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 누구 보다 그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 그들이 늘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송구스럽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이 있기까지 범민련 한총련의 헌신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문익환 목사님, 임수경의 통일방북이 없었다면, 그 뒤를 이어 사선을 뚫고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내던진 이들이 없었다면 6.15 공동선언이 가능했을가?

엄혹한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탄압을 뚫고 남보다 앞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인하여 방북이 불허되는 범민련 한총련을 볼 때마다 무어라 말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분단시대, 대결과 반목만이 통용되던 시절에 남과 북의 동포를 하나의 겨레로 인식하고 그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이야말로 6.15 공동선언의 밑바닥을 적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올해의 정세는 그 어느 해보다 더 절실하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지 못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민족의 불행이 다시 한번 닥쳐올 수 있다. 미국에 의한 전쟁 책동이 그저 위협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닥쳐있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속에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합법적인 활동 보장이 자리하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통일을 가장 먼저 실천했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되어있는 범민련, 한총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6.15 공동선언의 한귀퉁이가 무너져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통일이란 그저 몇 번의 방북을 하고 대규모 자주교류를 하는 문제일 수만은 없다. 사실 반통일 악법에 의해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하는 제약이 있는 속에서 진행되는 남과 북의 만남은 진정한 의미의 자주교류라 할 수 없다. 이남의 민중들 치고 북에 다녀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분단에 대한 절절한 한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한번이라도 더 만나 확인하고 싶어하는 절절한 염원이 우리들의 본마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남과 북의 뜨거운 만남의 자리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 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자주교류가 시작된다는 사실을.우리는 지난 남북실무회담을 통하여 ≪남북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를 더욱 발전시켜 올해 통일운동을 활성화 해 나갈 것이며 그 길에서 6 · 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의 중심에는 범민련 한총련 성원이라는 이유로 남과 북의 만남의 자리에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한총목상임집행위원장
통일연대 2002/04/26

전농 창립 12주년 기념식

전국 농민회 총 연맹(이하 전농)은 24일 단국대학교에서 전농 대의원 및 임원 약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중앙위원회를 열고 총연맹 활동 일지 및 영역별 사업을 보고하고 9기 전농 1차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론하고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현찬(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의장은 대회사에서 ≪4.18일 발표한 김대중 정부의 쌀산업 종합 대책안은 한마디로 ≪쌀산업 포기≫라며 전면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생산감축과 농지축소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 농업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들의 눈물을 강요하는 세력은 미국≫ 이라 주장하며 ≪전체 국민이 반대하는 F15를 기어이 구입 결정하는 김대중 정권 뒤에 미국이 있는 것 처럼, 쌀산업포기정책의 뒤에는 역시 미국이 있다≫ 전제하고 ≪1000만 서명운동과 30만 대중집회 성사는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들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힘을 꺾는 본격적 투쟁이고, 우리는 ≪민족식량주권사수≫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 중앙위원회를 마치고 이어 전국농민회 창립 1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전농은 이날 3명의 회원에게 박상봉(부산시농민회), 김병관(장흥군농민회), 박종구(상주시농민회) 표창패와 꽃다발을 수여하고 앞으로 더욱 더 농민회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중의 소리 2002/04/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회≫

지난 24일 ≪정동아트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25차 대의원대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 토론 도중 오후 8시 30분 대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를 선언하고 폐회하였다.

지난 4.2 총파업 유보로 민주노총 임원진 사퇴에 따른 임시비상대책위에서 이번 25차 대의원대회에서 ≪비상대책위 구성과 상반기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안건에 들어가기 전 발전노조 관련 교섭단이었던 이홍구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4월2일 총파업유보≫에 관한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많은 대의원들의 질의,응답속에 ≪이 모든 과정을 이끌었던 집행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한다≫ 밝히며 향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등 보다 더 근원적으로 재조명하여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대회 의장인 이수호(전교조) 임시비상대책위원장은 성원부족에 따른 유회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노동자의 의리, 민영화의 저지를 위해 힘들게 싸워왔다. 앞으로 서로 함께 단결해 나가고 건강한 노동자가 있는 한 민주노총은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주요 안건인 ≪비상대책위 구성≫은 중앙위에서 의결하기로 하였다.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2002/04/25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3)

1. 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2. 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3.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4. 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5. 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6. 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7.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 정권의 관계문제

8. 제안 -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5. 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반제자주역량과 민중적 민주역량의 포진구도를 전국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반제자주역량의 중심권은 북측에 존재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중적 민주역량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돋보인다. 북측에도 민중적 민주역량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북측에는 민중적 민주역량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역량이 존재하고 있다. 민중적 민주역량과 사회주의 혁명역량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3대 강령 가운데 자주강령은 전국적 판도에서 수행해야 할 강령인데 비하여 민주강령은 남측에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령이므로 그것은 남측 지역에 국한되어 수행해야 할 강령이다. 따라서 민주강령을 수행하는 민중적 민주역량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고유한 역량이다. 그러므로 민중적 민주역량을 더욱 강화・장성하는 일차적 책임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에게 있다.

지금 민족민주전선의 민중적 민주역량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주강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민중적 민주역량을 강화・장성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민주강령의 총적 목표는 일반 민주주의의 완성이나 ≪인권선진국≫의 건설이 아니며, 오직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이다.

민족민주전선은 미군 철거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그리고 통일전선 구축사업을 통해서 자주강령과 민주강령을 수행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전략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족민주전선에게 결정적인 의의를 부여하게 되는 과업은, 미군을 철거하는 과업보다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과업과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이 될 것이다. 위에서 이미 해설한 대로, 미군 철거투쟁은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함께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에 의해서 철거하게 될 것이므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몫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남측에서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이 된다. 민족민주전선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남측에서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에 더 많은 힘을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일전선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해설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경로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앞으로 6.15공동선언에 따라 남북(북남) 정부당국 사이의 합의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북측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지난해에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그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회담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았다. 북측은 6.15공동선언 뒤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장관급(상급)회담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앞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되어도 서울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북측이 마치 국가보안법 철폐원칙에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오해다. 북측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전에는 남북(북남) 사이에서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원칙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측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나 그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앞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책임적 주체는 북측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이 아니라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민중적 민주역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측이 조・미 정치협상을 통해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강제하고 그에 따라 미국이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체제가 철군 시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기 시작하면 남측의 반통일, 반민중세력은 자기들이 의존해왔던 ≪강한 보호자≫가 떠나버린다고 생각하고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국가보안법에 더욱 악착같이 매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있는 세력은 제국주의세력이 아니라 남측의 반통일, 반민중세력이다. 그러므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남측의 반통일, 반민중세력을 힘으로 제압하기 전에는 국가보안법 체제가 남북(북남)관계의 변화추세에 따라 어느 정도 완화・개편은 될지언정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에 그 선언과 전적으로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강력한 정치투쟁을 벌이는 문제는 이제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고유한 몫으로 남겨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대로 만고악법 국가보안법은 양날이 선 저주스런 칼과 같다. 반통일의 칼날은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민주의 칼날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김대중 정권은 6.15공동선언 이후의 정세발전에 맞게 국가보안법의 내용 가운데서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부분과 ≪불고지죄≫를 없애고 ≪고무・찬양죄≫를 적당히 손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으로 서울회담이 성사되면 집권세력 안에서 개정파의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파의 주장대로 개정되면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의 칼날은 상당히 무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개정파의 요구가 관철된다 하더라도 반민주의 칼날은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노리고 있는 것은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교류하거나 더 나아가서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아니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측은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바로 그 부분이 제거된 개정판 국가보안법이 나온다면 북측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판 국가보안법에 남아있는 반민주의 칼날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과제는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투쟁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투쟁력으로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면,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며 따라서 민족자주위업을 명실공히 단결된 민족주체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측의 민족민주전선은 미군을 철거하기 위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치투쟁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역량의 포진구도와 투쟁수준을 생각한다면 민족민주전선은 미군 철거투쟁보다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지난 1월에 북측은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달 동안의 기간을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7천만 민족 앞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북측이 조국통일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민족통일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북측에서는 조선반도의 통일을 말할 때 민족통일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언제나 조국통일이라는 개념을 쓴다. 그러므로 북측이 말하는 ≪민족통일촉진≫은 민족의 통일을 촉진한다는 뜻이 아니라 민족통일전선을 촉진한다는 개념이며,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이라는 개념은 민족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촉진하는 기간이라는 뜻이다.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예전처럼 남과 북(북과 남), 해외가 모여 통일행사만을 진행하자는 뜻이 아니라 폭넓은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자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려면 우선 통일전선전략 전반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일전선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남측에서 구축되는 지역통일전선이다.

첫째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에 관하여 살펴보자.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줄여서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1980년대의 통일전선전략이론에서는 이것을 ≪남북(북남) 통일전선≫이라고 불렀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한다는 말은 다양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사상, 이념,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찾아내고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 결집한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따르는 사회운동세력이 조직적으로 결합한 전선이지만, 민족통일전선은 그 3대 강령에 따라 결집되는 전선이 아니다.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조선민족의 민족통일전선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사상, 이념,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집하는 전선이다.

우리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반국적 관점

→

에서 벗어나서 전국적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조선민족의 민족통일전선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하는 것이므로 그 중심은 북측의 정치역량이 된다.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의 구축은 북측의 정치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남측과 해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북측의 정치역량은 평양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김대중 정권을 포괄하는 민족통일전선이 실현 가능한 것임을 입증하였으며, 지금 그러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민족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수립될 ≪민족통일기구≫는 바로 이 민족통일전선이 남북(북남) 정부의 정치적 의사와 요구, 그리고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각이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의사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지위와 권능을 가진 정치기구로 조직화된 실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의 목표는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여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바탕은 무엇인가? 그것은 6.15공동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을 지지・찬동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결집된 새로운 전선이 민족통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북측의 정치역량이 민족분열세력의 방해책동을 꺾고 승리한 결과로 6.15공동선언이 성립된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제국주의의 조선반도 지배정책이 낳아놓은 산물이라고 보는 착오나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 보는 착오는 모두 버려야 한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남북(북남) 정부당국 사이에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일단 돌파구가 열렸다. 그러나 남측의 정부만이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아직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그렇게 된 것은 남측 정부당국이 방해・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측 정부당국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된 것이 마치 자기들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가능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통제범위 밖으로 벗어나서 남북(북남)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을 ≪범죄적 일탈행위≫로 규정하면서 짓누르고 있다. 남측 정부당국은 남북(북남)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의 교류는 허용하지만 민족통일전선 구축사업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다. 남측 정부당국은 교류는 자기들의 ≪대북 포용정책≫을 실현하는 방도인 반면, 민족통일전선 구축은 북측의 대남정책을 실현하는 방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남북(북남)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평가절하하거나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교류 자체를 금압했던 6.15공동선언 이전의 상황에서는 남북(북남)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자체가 의의를 가졌지만, 6.15공동선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누가 무엇을 위하여 교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북남)교류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대북 포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북남)교류를 추진하느냐가 선택적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북측의 정치역량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남 교류를 추진하면 그것은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교류가 된다. 북측의 정치역량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북남)교류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유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 남측에서 구축되는 통일전선에 대하여 살펴보자. 남측의 통일전선에는 두 종류가 있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과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이 그것이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부르고,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먼저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민족민주전선)에 대하여 알아보자.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의 3대 강령을 최고의 높이에서 실현하게 되면 그것이 곧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ational Liberation Democratic Revolution)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이 아니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DR)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이러한 개념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서술하겠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은 종국적으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남측에서 민족민주전선의 초기 형태의 조직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생겨나기 이전인 1980년대에 정립된 통일전선전략에서는 남측 지역 통일전선을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파시스트 정권 하에서 정립되었던 남측 지역에서의 통일전선전략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해명하였다. 이미 1960년대부터 40여 년 동안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투쟁해오고 있는 각양각색의 민족민주전선은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통일전선이다. 그렇지만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불과 10년의 연륜밖에 갖지 못한 청소한 운동력이므로 다른 나라의 민족민주전선들처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 만한 사상적・조직적 준비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아직 혁명운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3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선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물론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자기의 역량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장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남측에서 민족민주전선의 초기 형태의 조직이 생겨난 이후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리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지금 우리는 통일전선전략이론을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해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통일전선전략을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내일 계속)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5월

광 고

6.15주간 제44호

(주체91, 4/19～4/25)

노작 – 조국광복회 조직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자
특집 – 선군의 기치아래 평화도 통일도 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70년
조선인민혁명군창건과 그 역사적 의미
명장의 풍모를 완벽하게 지니신 군사의 영재
선군영도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신 **김정일**장군
조선인민군은 민족의 자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위성발사
조・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문제와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과업
부시 정권의 6.15 공동선언 방해책동과 한민족의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투쟁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정치
한국민족민주전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6.15공동선언 실현 – 통일연대 통일일꾼 수련회 열려
주한미군철수
미국전투기도입결정 당장 철회되여야
네티즌들, 反美축제 ≪오! 노 USA≫ 열기로
≪5.18시민법정에 미국을 세운다≫
연단
반미반전운동을 전망성있게 벌여나가자
반미는 노농운동의 주요과제